

To be Global leaders by the Korean Language!

An-young

우송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뉴스레터

世宗 御製 訓民正音
 나랏말싸미 中國에 갈아
 文宇 와로서르스모디아니올씨
 이런전초로어린百姓이니르도
 저흥배이셔도
 무출내제브들시러피도문흥호니더
 니라 내이를爲興야아였비더겨
 새로스름어름字를린고노디
 사름마다히여스비니겨를부르며便
 僻處한 크고전흥사들이니라
 녁

大觀門



통권 제8호 | 2008.05.30

Woosong Korean Language Center · Woosong University
우송대학교 한국어교육원

2008 | 05 | 30 | 통권 제8호

Contents

차례

3 **생각** | 교수 수필 · 지는 꽃에 대한 단상 / 이강록

4 **새소식**

8 **산행기** | 모악산 산행

10 **느낌** | 나의 한국 적용하기

발행인 김선중
편집인 최 학

편집장 왕 흥
편집위원 효심, 강용, 율효가

design 종려나무 Tel. 042)544-9333

지들꽃에 대한 단상



클 이강록
한국어교육원 교수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숨 가쁘게 피어나는 진달래, 벚꽃, 철쭉, 철쭉들... 봄이면 남쪽에서 달려 오는 꽃들의 속도에 눈이 아찔하다. 우리 도서관 앞뜰에도 그렇게 달려온 꽃들이 무너질 듯 무더기로 피어났다. 빨강, 분홍, 하양, 성질 급한 그 짧은 꽃들은 제 색깔에 어울리는 목소리로 급세 말이라도 걸어들어갈 것만 같았다. 매일처럼 교정에 나와 그 곁에 앉았던 건 그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였을지도 모른다. 기적처럼 하나 둘 입을 열기 시작해 어느덧 와글와글 떠들어대기까지 하던 꽃들은, 그 많은 꽃들은 또 다른 계절을 재촉하는 뜨거운 햇살 아래 모두 지고 말았다.

꽃 진 빈 교정이 허전하고 이제 곧 사라질 꽃들 때문에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괜히 혼자 심통이 난다. 이런 어수룩한 마음이 어수룩한 시를 한 편 쓰게 한다.

우송도서관 비탈로 와글와글 와당탕 무너져 내리던 꽃무더기, 그렇게 속닥거리고 간살부리등만¹⁾ 지들끼리 다 가버렸나 보다. 꽃 진자리 햇살만 킁킁하다. 미웍한 고놈들, 울그락불그락 고놈 꽃들의 고성방가에 봄잠 못자고 애먼²⁾ 마음 함께 지센 밤, 향기만 벗어놓고 지들끼리³⁾ 지고 지들끼리 지고 다 가버렸나 보다.

예쁜 놈들은 그렇게 가나보다. 우송도서관 앞뜰의 등꽃, 고만고만한 꼬투리 같은 꽃을 매달고 보란지 파랑인지 눈에 알짱거리등만⁴⁾ 지들끼리 다 가버렸나 보다. 매정한 고놈들, 도란도란 소곤거리는 향기에 봄잠 못자고 애먼 마음 함께 지센 밤, 향기만 벗어놓고 지들끼리 지들끼리 다 가버렸나 보다.

어느 바람이 개들 데리고 다독다독 북으로 북으로 몰아가던지, 앞뜰과 뒤뜰엔 오롯이 빈 햇살만 걸리었다.

1) 사투리. 표준어 표현은 '간살부리더니만'이다.
2) 엉뚱하게 다른, 죄 없이 억울한.
3) 사투리. 표준어 표현은 '저희들끼리'이다.
4) 사투리. 표준어 표현은 '알짱거리더니만'이다.



‘민속촌’에서 맛 본 한국의 정서

4월 24일 한국어교육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350여 명의 외국 유학생들이 용인에 있는 한국민속촌을 견학했다. 당일 오전 9시 12대의 버스에 분승하여 용인 현지로 간 유학생들은 각 반별로 기념촬영을 마친 뒤 민속촌에 입장하여 미리 준비해 간 도시락을 먹고 관람을 시작하였다.

조선시대의 각 지방 농가들과 사대부 집들, 그리고 관아와 저자거리가 잘 재현돼 있는 민속촌 내부를 거닐면서 유학생들은 한국의 정서에 흠뻑 빠져들었다. 모국의 풍물과 전혀 다른 한국의 옛 모습에 지대한 관심을 보인 유학생들을 인솔교사들의 설명을 듣기에 바

뻐으며 동료들과 기념촬영을 하기에 여유도 없었다. 이날따라 쾌청한 봄 날씨 속에 민속촌은 수많은 외국 관광객 및 소풍 나온 국내 학생들로 넘쳐났으며 각종의 풍물 재현장 앞에는 그것을 보고자 모여든 구경꾼들로 북적였다.

오후 3시 모든 관람을 마친 유학생들은 대기하고 있는 버스에 질서정연하게 올라 무사히 학교로 돌아왔다.



성황을 이룬 제4회 외국 유학생 한국어 말하기 대회

그동안 한국에서 익힌 한국어 솜씨를 뽐내는 네 번째 외국 유학생 한국어 말하기대회가 5월 9일 우송도서관 정보센터 강당에서 열렸다. 이강록 교수 및 여설(중국, 호텔경영학과 4년)의 공동 사회로 막을 올린 이날의 대회는 교육원 활동 동영상 상영, 최학 원장의 인사말, 김성경 이사장의 축사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인사말에서 최 원장은 "얼마나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한국말을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으며 김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진정한 재미를 가지고 더더욱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날 대회에는 한국어집중반, 언어연수반, 한국어과 등에서 총 12명의 학생들이 출전하여 자신이 겪은 한국생활의 에피소드, 장래 꿈 등을 한국어로 토로하였다. 순서 중간 중간에는 유학생들의 모국 소개, 연극 공연, 교육원 선생들의 음악공연 등이 삽입되어 재미를 더해 주었으며 객석을 가득 메운 유학생들을 순서가 끝날 때마다 열렬한 응원을 마다하

지 않았다.

예년에 비해 참가 학생들의 한국어 발음이 월등히 향상되었고, 태도 또한 진지하였다는 평을 받은 이번 대회에서 최고 영예의 최우수상을 수상한 학생은 <신라의 황후인 나는 신화의 골수팬>이라는 제목의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 준 국제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유정(3학년)이었다. 한편 이날의 시상상은 공무 관계로 늦게 참석하신 김선중 총장이 하였는데, 시상을 마친 김총장은 격려의 말을 통해 모든 유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이 날로 발전하고 한국생활이 유익하게 전개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날 상을 받은 학생들은 다음과 같다.

- | | |
|-------------|--------------------------------|
| 최우수상 | 유정(국제경영) |
| 우수상 | 학훈(국제호텔), 만신윤(컴퓨터디자인) |
| 장려상 | 장천천(뷰티디자인), 손강(한국어과), 호심(국제경영) |
| 인기상 | 오소+동정(국제경영), 왕가가 외 9명 |



제3기 외국인유학생회 구성



회장 기위

회장 기위 紀偉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로 우송대학교 외국인 유학생의 숫자가 총 8백 명이 넘게 되었습니다. 9월 학기가 시작되면 천 명을 상회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유학생회의 책임도 더 무겁게 되었습니다. 우리 제3대 외국인 유학생회는

우승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정과 패기로 유학생들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현재 유학생회는 유학생회장 부회장 아래에 체육부장, 문예부장, 생활부장, 여학생부장 등의 직책을 만들고 각 학년 대표도 구성하였습니다. 또 축구동아리, 농구동아리, 여행동아리, 연극동

아리, 응원동아리 등의 여러 취미 동아리를 만들어 많은 학생의 호응을 받으며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학생회는 유학생들을 대학생활에 더 많은 활기를 불어넣는 학생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을 바라며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부회장 방서

부회장 방서 方舒 •안녕하세요. 저는 제3대 외국인유학생회의 부회장으로서 유학생들이 더욱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동시에 학생들이 더 많은 권익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일하겠습니다. 동시에 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라 생



지난 3월, 2008년 학년도 우송대 유학생회를 이끌어 갈 새 집행부가 구성되어 정식으로 제3기 유학생회를 출범시켰다. 회장을 비롯한 각 임원들의 포부를 들어보는 자리를 만들었다.

2008년 학년도 외국인유학생회 활동 계획

- 2008. 4. 우송대 체육제 준비 _축구팀\ 농구팀\ 응원단
- 2008. 4. 19 여행동아리 _에버랜드 여행
- 2008. 5. 여행동아리 _제주도여행
- 2008. 5. 20 세계인의 날 _서울 올림픽공원 참가
- 2008. 5. 29 04학번 졸업 파티
- 2008. 6. 8 여름방학 한국문화 체험
- 2008. 8. 9 외국인유학생 신입생 환영회
- 2008. 9.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추석 페스티벌
- 2008. 10. 우송체육대회 준비

각하고 우송대 유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저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의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여학생부장 우가가 于佳佳 • 제 힘껏 노력하여 유학생회의 발전과 유학생들의 대학생활을 돕겠습니다. 학교와 협조를 하면서 유학생들에 관한 제도를 더 좋게 고쳐나가겠습니다. 더 재미있는 유학생회를 통해 우송의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문화부장 이연 李然 • 유학생들이 유학생회 활동을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도 재미있는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즐겁기를 바랍니다.

체육부장 요희 姚輝 • 우송대의 모든 유학생들이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 것이며 수업 외 시간에 운동 및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학생들이 더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생활부장 주려평 朱莉萍 • 유학생들이 수업 외 시간에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유학생들이 우송대학에서 집과 같은 따스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악산 산행

글 유천강 국제경영학과 4학년

2007년 크리스마스. 이날 나와 하, 왕 등 중국 유학생 셋은 최 교수님과 함께 전주 모악산을 등산했다.

특별한 날, 특별한 마음으로 아침 10시 30분에 교수님의 승용차를 타고 학교 교문을 출발했다.

드넓고 질푸른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다. 크리스마스가 맑고 아름다운 햇빛을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것 같았다.

한 시간쯤 고속도로를 달리자 모악산이 먼 데서 나타났는데 열은 안개가 산허리를 두르고 있었다.

드디어 모악산 주차장에 도착했다. 산에서 먹을 점심거리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주변에 김밥집이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비싼 가격으로 전주 비빔밥을 미리 먹고 산을 오를 수밖에 없었다. 식사에 곁들여 소주 한 잔을 마시자 속이 시원해졌고 피곤함이 없어졌다.

〈母岳聖山〉이라고 써 놓은 절 입구의 암석을 마주보며 등산을 시작했다.

전라북도 모악산은 금산사를 품고 있는 남도의 명산이

다. 금산사는 한국 미륵신앙의 중심지인 동시에 후백제를 세운 견훤이 이곳에 유포(幽閉)된 사실로도 유명하다.

금산사 경내를 둘러본 뒤 심원암(深源庵)으로 오르는 숲길로 접어들자 아연 길이가 가팔라졌다.

교수님께서 여학생인 왕이 괜찮을까 걱정을 하셨는데 나는 그녀가 보통 여자가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렇지만 일행 중 유일한 여자인 왕은 숨이 고르지 못했다. 나와 하는 남자답게 호흡을 가다듬으며 힘차게 걸었다.

심원암 뜰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다. 스님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하가 교수님께 우리가 이제 산허리쯤에 도착한 것인지 여쭙어 보았는데 교수는 가볍게 손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닦으시고 아직 산기슭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셨다. 왕이 낙심한 듯이 눈이 크게 뜨고 쓰러지듯 나무에 등을 기댔다.

한 모금씩 물을 마시고 산행을 계속했다.

가끔 오솔길에서 새가 훌쩍 튀어 날며 청량하게 재잘댔다. '서당개 10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더니 금산사 주변

의 새들도 염불을 외는 재주를 가지고 있는 듯싶었다.

안부鞍部를 지나 다시 산죽山竹 숲길을 오를 때쯤 왕도숨을 헐떡거렸다. 앞서 건넌 교수님께서 앞쪽의 산봉을 가리키면서 저기가 우리의 목적지라고 말씀하셨다. 최고봉은 아니었지만 곧 어려운 산행을 마칠 수 있다는 마음에 신이 났다.

컵에 물을 가득 채우면 쉽게 흘러넘치듯, 중국 고대 시인도 흥에 취한 김에 달빛을 밟고 강으로 건너려다 도중에 놀라서 포기하고 돌아갔다는 고사가 있다. 우리 또한 무리해서 정상까지 갈 이유가 없는 것이다.

잠시 쉴 때였다. 교수님께서 담배 한 개비를 손에 들고 깊은 생각이 빠진 모습으로 걸으셨다. 천천히 담배 연기를 들이 마실 때는 담뱃불이 선홍빛을 띠었는데 게다가 눈부신 햇빛이 어우러져서 한 폭의 선명한 산행 그림을 만들었다.

왕이 디카를 꺼내서 사진을 찍었고, 우리들 모두 특별한 추억이 사진에 새겨지기를 바랐다.

산을 내려올 때, 나는 교수님의 발꿈치를 따라 빠르게 걸었다. 머잖아 뒤에 처진 하와 왕이 차츰 안 보일 정도로 멀어졌다.

나는 좀 신경이 쓰였지만, 교수님은 자기들끼리 있으면 더 좋을 것이라고 하셨다. 교수님도 하가 왕을 좋아하고 있음을 헤아리고 계신 듯싶었다. 나는 그 말씀을 듣고 혼자만의 상상으로 문득 깨닫게 되었다. 뒤돌아보지 않고 꾸준히 숲속 오솔길에 빠르게 걸었다. 하가 꼼꼼하게 후배를 돌보았는데, 배려하는 동작과 온화한 목소리를 봐서 그가 얼마나 그녀를 좋아하는지 알만 했다.

때때로 노래 소리를 길게 끌며 나타난 등산객들도 우리와 전생애 인연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 작은 숲 그들의 산길에서 만난 그들과 얼굴에 웃음을 띤 채서

로 인사를 하였다. 교수님도 그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낮은 소리로 한국노래를 부르셨다.

머지않아 산 아래 도착했다. 하동이 개천의 징검다리에 내려가 춤을 추듯 뛰어다녔다. 성숙한 청년이지만 한편으로는 순진한 아이의 마음이 있는 것이 분명했다.

개천에는 밀바닥이 보일정도로 맑은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있었다.

급한 일이 있는 듯 물살이 급히 흘렀다. 온 천지의 나를 조용히 느낄 수 있었다. 교수님께서 예전에 '인자한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고 우리 중국의 선지자 말씀을 들려 주셨을 때 나는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맑은 물이 흐르는 이 겨울 산중에서 무엇인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하가 갑자기 손을 씻으려고 개울물에 손을 대다가 팔 짝 떨어 일어나며 이를 벌벌 떨었다. 물이 얼음처럼 차가운 모양이었다.

마침내 주차장을 도착했다. 떠나오기가 아쉬웠지만 '세상에 이별 없는 잔치가 없다.'는 말을 새기며 아쉽게 금산사를 떠났다. 그래도 차의 라디오에서 나오는 주화진 노래를 따라 부르는 우리들 모두의 기쁨의 목소리가 금빛 저녁노을 속에서 울려 퍼졌다.





방서

남한과 북한

글 방서 국제경영학과 3학년

지난 여름방학 때 저는 한국교육원에서 근로활동을 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어느 날 시간이 있어서 북한에 관한 기록 영화를 봤습니다. 그 후

교육원의 선생님과 남북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줄곧 나빴다고 했습니다.

사실 현재 남한과 북한은 차이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의 청년들은 어렸을 때의 영양불량 때문에 남한의 청년들보다 키도 작고 체중도 가볍다고 합니다. 그리고 옷차림에도 차이가 많습니다. 남한 청년의 옷차림은 멋있지만 북한청년의 옷차림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께 북한사람들이 다 김정일을 숭배하느냐고 여쭙봤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북한사람들이 어릴 때부

터 받는 교육 때문에 김정일을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김정일은 지도자로서의 인격을 잘 갖추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많은 남한 사람들의 부모님과 친척들이 북한에 있습니다. 노인들은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최근에 남북한 관계가 조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교류가 조금씩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큐를 보면서 북한의 의료시설이 정말 나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를 들면 수술대도 깨끗하지 않고 다른 것들도 참 나빴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정말 무서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북한에서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심했다고 했습니다. 또 만약 남북한이 통일되면 많은 문제에 직면할 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북한 사이에 경제 차이가 많고 다른 영역도 차이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정말 걱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남북한이 하루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설혜화

한국과 중국의 서로 다른 음주 문화

글 설혜화 컴퓨터디자인학부 2학년

한국에서는 술을 마실 때 중국과는 다른 방식으로 마십니다.

중국에서는 술을 마실 때 상대가 조금이라도 마시면 계속 잔에 술을 따

라 주는데 한국에서는 술잔을 다 비울 때까지 술을 따르지 않습니다.

또 어른이 술을 줄 때는 한 손으로 받지 않고 두 손으로 받아서 마십니다.

중국에서 술자리에서 건배를 할 때 학생과 선생님이 같이 있어도 아무나 건배를 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선생

님이 건배를 합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소주를 마시는데 소주는 중국의 술들보다 약하지만 마신 다음날에 머리가 아픕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을 때 술자리를 가집니다. 술을 마시면서 금방 친해집니다.

그리고 대학생들도 처음 입학했을 때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술을 마시라고 하고 후배들도 그 술을 받아서 다 마십니다. 그런 술자리를 통해서 선후배가 많이 친해집니다.

처음엔 한국 사람들과 술을 마실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실수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많이 배워서 더 이상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청명절에 생각나는 사람

글 만로 컴퓨터디자인학과 2학년

올해 4월 4일은 청명절이에요. 청명절은 중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는데 비슷해요.

청명절에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들의 무덤에 가서 제사를 지내요.

저는 특히 할아버지가 그리워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어요. 깊은 밤중이었는데 할아버지는 천수를 다 하시고 집안에서 돌아가셨어요. 연락을 받고 부모님께서 곧바로 할아버지택으로 가셨어요. 그렇지만 저는 중간고사가 있어서 가질 못했어요. 시험이 끝나면 다시 와서 데려간다고 아버지가 말씀 하셨어요. 이틀 후 시험이 끝났을 때 아버지가 학교 정문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는 아버지와 함께 할아버지택에 갔어요. 저는 너무 슬퍼서 차를 타자마자 눈물을 흘렸는데 차에서 내릴 때는 눈이 퉁퉁 부어 올랐어요. 하지만 할아버지택에 도착한 후 저는 후회했어요. 할아버지는 이미 공무원직에 묻힌 뒤였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만남도 못했

어요. 부모님과 저는 지금까지 후회하고 있어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저는 할아버지의 돌아가신 일에서 회복될 수 있었어요.

관계가 깊은 사람이 세상에서 갑작스럽게 없어지면 사람들은 밥도 먹고 싶지 않고 외출도 하고 싶지 않아요. 정신상태도 좋지 않아요. 그렇지만 슬픔을 억제하세요. 그리고 빨리 회복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천국 나라에 있는 친척이나 친구도 슬퍼할 거예요.

청명절이면 사람들은 성묘를 하면서 세상을 떠난 가까운 사람들을 기념해요. 세상을 떠난 그 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더 굳고 강해야 돼요.



만로

한국 학생과 우정을 만드는 즐거운 MT

글 성남 호텔외식경영학과 3학년

지난 주 금요일, 토요일 이틀에 걸쳐 우리 호텔외식경영학과 1, 2, 3학년 학생들은 다 함께 MT를 갔습니다. 각 조는 한국학생과 중국학생들로 구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말만 해야 했습니다. 저는 한국말을 잘 못 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한국말의 의미를 대강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부터 MT 예정지까지는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한국에는 산이 많아서 굽은 길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멀미를 했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드디어 MT 장소에 도착 했습니다. 힘이 들었지만 점심으로 김밥을 먹었습니다. 점심을 먹은 후에는 강좌를 들었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에는 파티를 했습니다. 레크리에이션도 했습니다. 게임을 해서 진 사람이 춤을 추었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레크리에이션이었습니다. 남자는 여장을 하고, 여자는 남자로 분장을 했습니다. 특히 남학생이 여자옷을 입고 화장을 한 모습이 너무 예뻐했습니다. 일부 남자들은 여자보다 더 예뻐했습니다. 동작과 소리도 여자 같았습니다.

각 조의 대표가 무대에 올라가 연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교수님과 같이 춤을 추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그 후 각 조는 방으로 갔습니다. 우리 조는 불고기, 라면, 다래통조림, 과자와 튀김 등을 먹었습니다. 술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 동안 우리는 게임을 했습니다.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별로 술을 잘 마시지 못했지만 그 날 우리는 즐거워서 많이 마셨습니다. 우리는 새벽 3시까지 놀았습니다. 재미있지만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늦게 잠을 잤습니다. MT에서 한국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함께 얘기하면서 저의 한국말이 유창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남



동홍복

한국의 연인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날들

글 동홍복 국제경영학과 2학년

한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블랙데이 등 매월 14일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날이 되어 버렸어요. 매달 14일이 되면, 거리에

는 화려한 장식의 선물들이 쌓이고 행사로 북적대요. 그래서 이 날은 연인들한테 인기가 아주 많아요.

1월14일은 '다이어리데이'로 일년 동안 쓸 다이어리를 연인에게 선물하는 날이에요.

2월14일이 무슨 날인가 하는 것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되겠죠.

3월14일은 '화이트데이'로 서양에는 없지만 동양에만 있는 날인데 이 날에는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사탕을 선물하며 자신의 마음을 전해요.

4월14일은 '블랙데이'로 발렌타인데이에 남자 친구한테 초콜렛을 선물하지 못한 여자와 화이트데이에 여자 친구에게 사랑을 주지 못한 남자들이 서로 만나서 외로움을 다 털어놓는 날이에요. 이런 남자와 여자들은 이 날 짜장면을 같이 먹어요.

5월14일은 '엘로우데이'로 '블랙데이'까지 연인을 사귀지 못한 사람들이 노란색 옷을 입고 카레를 먹어요.

6월14일은 '키스데이'로 연인들이 입맞춤을 하는 날이에요.

7월14일은 '실버데이'로 자신의 애인을 선배에게 선보이는 날이에요.

8월14일은 '그린데이'예요. 더운 여름에 시원한 산을 찾아 연인끼리 손잡고 걸어 오르면서 산림욕을 해보는 날이에요.

9월14일은 '포도데이'예요.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에서 연인과 같이 사진을 찍는다고 해요.

10월14일은 '레드데이'로 깊어가는 가을에 연인과 함께 외인을 마시는 분위기가 있는 날이에요.

11월14일은 '오렌지데이'로 두 사람이 함께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 날이에요.

12월14일은 '히크데이'예요. 추운 겨울도 따뜻하게 보내면서 한 해를 이겨 연말을 같이 지내요.

연인들은 이런 특별한 날들을 함께 지내면서 서로 더 사랑하게 되겠지요?



진원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글 진원 국제경영학과 3학년

나는 우송대학교에 유학 온 중국학생이에요. 한국에 온지 벌써 반년쯤 됐어요. 그 동안 한국생활에 많이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감수하는 면

도 있어요.

한국의 날씨는 내 고향 중국남경보다 더 건조해요 특히 요즘에는 춥지 않아 많은 여자들이 짧은 치마를 입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봄에 피는 꽃처럼 신선하고 예뻐요. 그러나 기숙사는 실내 온도가 높아서 음식이 쉽게 상해요. 예를 들어, 초콜렛은 다 녹아버려요. 매일매일 중국에서 가지고 온 간식을 걱정해요! 우리 기숙사 방에는 나와 친구 두 명이 같이 있어요. 24시간 뜨거운 물을 사용할 수 있

고 24시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숙사의 조건을 아주 좋아해요.

경기도 내 고향의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절실하게 고향을 생각해요. 그렇지만 대전에는 산이며 교회가 많아요.

한국의 음식은 참 매워요. 그런데 불고기도 맛있고 갈비탕도 맛있어요. 그러나 과일 종류는 중국 보다 적으며 가격은 비싸요.

한국에서 가지는 어려움은 한국어를 배우지 1년 이상 됐지만 아직 한국말을 잘 못한다는 점이에요. 발음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길게 못 해요. 엄마가 전화를 하셨을 때 이 점을 이야기했어요. 엄마는 천천히 좋아질 거라고 하셨어요. 엄마 말처럼 빨리 한국말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숫대와 물고기

글 이운 국제경영학과 2학년

옛날에 배고픈 두 사람이 있었는데 연장자부터 차례로 은혜를 받았어요. 낙숫대 한 대와 아주 크고 신선한 물고기가 든 바구니였어요. 나이 많은 사람은 한 바구니의 물고기를 가지고 갔고 나이 적은 다른 사람은 한 대의 낙숫대를 가지고 갔어요. 그들은 제각기 제 갈 길을 갔어요. 물고기를 가진 사람은 먼 곳에서 마른나무로 모닥불 파워서 물고기를 끓였어요. 고기가 다 익는 후 그는 계눈 감추듯 그것을 먹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물고기와 국물을 다 먹어 버렸어요. 머지않아 그는 배고픔을 참지 못해 빈 대 바구니 옆에서 죽어 버렸어요.

다른 한 사람은 배고픔을 참으며 낙숫대를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해변으로 힘들게 갔어요. 하지만 그는 이미 최후의 힘마저 다 사용했기 때문에 멀고 질퍽른 해양조차 보지 못한 채 죽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또 다른 배고픈 두 사람이 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낙숫대 한 대와 아주 크고 신선한 물고기 한 바구니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제각기 제 갈 길을 가지 말고 함께 바다를 찾아

봄 날

글 이초 국제경영학과 3학년

향기가 가득한 계절 봄. 다양한 꽃이 피기 시작하고 파란 하늘 아래에서 사람들마다 웃음꽃을 피우며 즐겁게 이야기하고 연인들이 손 맞잡고 다니는 친밀한 장면을 볼 수 있다.

부지중에 겨울이 떠나고 봄이 우리 곁에 왔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고 봄의 공기를 호흡할 수 있다.

내가 듣기에, 한국에서는 '봄 여자, 가을 남자'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가을이 남자에게는 가장 외로운 계절이고, 봄이 여자에게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기 때문이다.

봄날은 연애하기 좋은 계절이다. 봄에는 복숭아꽃이 피고, 캠퍼스 잔디밭에는 언제나 쌍쌍의 연인들을 볼 수 있다. 같이 공부하고 같이 토론을 하며 서로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아주 부럽다!

봄날은 정말 행복한 계절이다. 혹시 여러분은 아직 안 연애하고 있어요? 해 봐요! 이 봄날에 하면 제일 낭만적

가자고 의논했어요. 바다로 가는 동안 그들은 배고플 때만 한 번에 한 마리의 물고기를 끓여 먹었어요. 먼 길을 고생스럽게 걸어 마침내 해변까지 갔어요. 그 후 그들은 그곳에서 물고기 잡은 것으로 생활을 했어요. 몇 년 후 그들은 집도 짓고 어선도 만들었어요. 각각 가정을 만들어 자식도 있었어요. 그리고 행복하고 평안한 생활을 했어요.

사람은 눈앞의 이익만을 돌아보면서 짧은 즐거움만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의 목표는 높고 멀지만 현실 생활을 직면해야 해요. 이상과 현실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야만 성공하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어떤 때, 한 가지 쉬운 이치도 어떤 사람에게는 의미심장한 계시를 줄 수 있어요.



일테니.

봄날은 또한 꿈의 계절이다. 모든 것이 다 새롭다. 새로운 기점, 새로운 추구, 새로운 몽상이 시작된다. 학생들은 또 다시 열심히 공부하고, 직업인들은 성실하게 일한다. 이전의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두 다 끝났다. 이제 모두 다시 시작인 것이다.

봄에 얼마의 대가를 치르면, 후에 치른 만큼의 대가를 얻는다. '1분 치르고, 1분 수확.' 이 봄, 우리의 꿈을 위해 당신은 얼마만큼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

하늘에는 새가 자유롭게 날고, 꿀벌은 벌꿀을 채취하기 시작한다. 땅의 생명체들은 이 아름다운 봄에 지금 뭘 하는지... 그들 역시 꿈을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을까?



남경과 대전

글 하환 국제경영학과 2학년

내 고향은 남경이다. 나는 지금 한국 대전에서 학

교생활을 한다. 남경과 대전은

비슷한 점도 많고 다른 점도 많다.

남경은 중국 몇몇 중심 도시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대전은 한국에서 중요한 도시이다. 두 도시는 서로 친선관계가 있어서 자매 도시이다. 그래서 남경에는 한국 사람이 많고 대전에는 중국 사람이 많다. 남경의 인구는 주변 도시보다 조금 많다, 약 800만 명이다. 주말에는 변화한 사업 거리와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대전의 인구는 남정보다 더 적다. 주말에만 시내에서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다. 평일에는 거리에 사람이

적다. 여러 대도시처럼 대전과 남경은 심각한 교통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기후 면에서는 여름에 대전은 남정보다 시원하고 겨울에는 대전은 남정보다 더 춥다. 겨울에 대전에 눈이 오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그런데 남경은 눈이 적게 온다. 눈이 오면 사람의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

남경의 물가는 대전보다 더 싸다. 생활비며 교통비도 다 싸다. 나는 수박을 제일 좋아한다. 여름에 남경은 수박이 쌀 뿐만 아니라 맛도 좋다. 아마 700원으로 수박 한 통을 살 수 있다. 대전에서는 수박값이 비싸서 만원이나 이만 원 짜리가 있다. 다른 과일과 채소 값도 대전이 남정보다 더 비싸다.

이렇게 대전과 남경은 대도시의 공통된 특징인 심각한 교통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구, 기후, 물가 면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친구란

글 서아정 호텔외식경영학과 3학년

친구란 당신이 편안하게 마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앞에서 당신은 당신의 영혼을 전부 드러내 보일 수 있고, 그 또한 당신의 솔직한

모습을 보기 원하며 당신 본래의 모습에서 더 나아지거나 더 못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친구와 함께 있으면, 당신이 진실한 이상 당신의 모든 생각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오해하게 만드는 당신 본성이 지닌 모순을 이해합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당신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속 어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허영과 질투, 증오와 비열함과 어리석음

등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모든 것을 그의 앞에서 드러내 보임으로써 그의 진실하고 순결한 대양 속으로 용해될 수 있습니다.

그는 당신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의 앞에서 조심스럽게 행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신은 아무런 말없이 침묵 속에서도 전혀 어색해 하지 않고 그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그는 마치 모든 것을 불살라 버리는 불꽃같습니다. 당신은 그의 앞에서 마음껏 울 수도 있고 함께 노래하고 웃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외면과 내면 모두를 사랑합니다. 친구란, 당신이 자연스럽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나의 좋은 세 명의 친구에게 줍니다

잊지 못할 생일잔치

글 왕가묘 컴퓨터디자인학과 2학년

우리나라에는 특별한 잔치가 있습니다. 그 잔치의 이름은 생일잔치입니다. 중국에서는 아이의 나이가 10살 또는 20살일 때 부모님께서 성대한 생일잔치를 열어 주십니다.

나의 기억 속에 내 10살 생일잔치는 아주 즐거웠습니다. 내 잔치에는 친척과 친구들이 다 왔습니다. 우리는 레스토랑에 가서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테이블 술과 음료수와 갖가지 반찬 등으로 풍성하게 차렸습니다. 케이크를 먹을 때 먼저 우리는 노래와 춤으로 떠들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케이크를 먹기 전에 내가 소원을 하나 빌었습

니다. 그 다음에 친척과 친구들로부터 여러 가지 선물을 받았습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케이크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날을 아주 즐겁게 보냈습니다. 매년 이런 생일잔치를 열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학생들과 중국에 대한 그리움

글 황유림 국제경영학과 2학년

한국에 온 지 이미 4개월쯤 되었어요. 우리는 새 기숙사로 이사했어요. 기숙사는 시설이 좋을 뿐만 아니라 출입할 때 아주 편리해요. 이 기숙사는 남경의 기숙사보다 좋아요. 여름에 남경의 날씨는 한국보다 더 더운데 에어컨도 없는 남경 기숙사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곳 기숙사는 두 명씩 한 방 살인데 에어컨이 있어서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해요. 제 룸메이트는 저보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청소도 자주 해요.

한국 음식이 제 입에 맞는 편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한국 음식을 먹을 때 너무 매워서 힘들었어요. 이제 잘 먹게 되었어요. 한국 음식 중에 불고기를 제일 좋아해요. 먹은 후에 냄새가 있지만 참 맛있어요. 한국 소주는 좀 매운 맛이 있는데 우리 입에 맞지 않아 싫어해요. 우리 중국 음식은 그 종류가 참 많아요. 여러 가지 음식 중에서도 남경 전통 요리인 '냄새 두부'와 '소금물 오리'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신선로도 좋아하지만 여름에 먹으면 좀 더워요.

한국에서 한국어를 많이 배웠어요. 평일은 수요일 빼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한국어 수업이 있어요. 지난 학기에 매주 수요일에 생생한국어가 있었어요. 생생한국어 수업의 내용은 태권도 배우기, 한복 입기, 불고기 만들기 등

갖가지 활동이 포함돼 있어요. 중국에서도 한국 문화를 체험하기 위한 이런 활동이 있었어요. 남경에서는 매일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한국어 공부 시간이었어요.

한국 생활이 아주 재미있고 풍부해서 마음에 들어요. 주말에는 항상 친구들과 같이 택시로 시내나 둔산동에 가서 쇼핑을 했어요. 한국말을 배우면서 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나 한국말을 잘 못 해서 말할 때 자신이 없어서 힘들었어요. 한국 옷이 예쁘는데 좀 비싸요. 물가가 높기 때문이에요. 중국에는 백화점도 많고 시장도 많아요. 옷들의 질도 좋고 값도 싸서 정말 좋아해요.

남경 효장대학에 다닐 때 학교가 집에서 가까워서 자주 집에 갔어요. 하지만 지금은 외국에 있으니까 집에 돌아갈 수 없어요. 부모님과 고향 친구들을 많이 그리워하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유학 생활을 좋아하지만 중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타이완에 대해서

글 주천문 호텔외식경영학과 3학년

대만은 중국 국토의 한 부분입니다. 지각운동 때문에 중국대륙과 분리됐습니다. 전국시대의 옛 이름은 도이입니다. 전후한과 삼국시대

때의 이름은 동곤과 이주입니다. 수당 이후에 류구로 바뀌었어요. 명 만력 연간의 이름이 대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세기 중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지로 변했습니다. 1642년에는 네덜란드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1662년에 정성공이 대만을 탈환했습니다. 1895년 4월 17일부터 50년 동안 대만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대만은 조국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후 대륙과 경제 왕래가 많아졌어요. 대만에서는 과일이 많이 생산됩니다. 그리고 장목과 빈랑나무가 많아요. 대만에는 오락업도 발달돼 있습니다. <유성화원>과 <못된 장난의 키스>는 아시아에서 유명했습니다. F4와 정원창 등의 배우들은 아시아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도 있습니다. 오월천과 왕력평은 세계 순회 콘서트를 했습니다. 대만에서 유명한 야간유흥업소의 이름은 ROOM18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영화 <색계>의 감독 리안은 대만사람입니다. 대만에서 중국 여러 지방의 특색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맛이 참 좋습니다. 대북101빌딩은 지금 세상에서 제일 높은 빌딩입니다. 지금 대만은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답고 싶은 수퍼주니어의 한경 오빠

글 채침 호텔외식경영학과 2학년

한국 생활 중에 가장 재미있고 신나는 일을 소개하려고 해요.

저는 한국에 와서 수퍼주니어를 만난 일이 그 무엇보다 신나고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멤버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당연히 한경 오빠이지요. 왜냐하면 한경 오빠는 중국 사람이고 춤도 가장 잘 춰요.

작년에 저는 수퍼주니어 대전 싸인회에 갔었어요. 두 번이나 갔는데, 한경 오빠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정말 실망했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러나 12월 9일 서울에서 수퍼주니어의 'Hug event'가 있었어요. 시험이 끝난 후 나는 친구들과 서울로 올라갔어요. 한경 오빠를 만날 수 있었어요. 처음 볼 때 너무 멋있었어요. 키도 크고, 잘 생기고, 바로 나의 이상형이었어요.

한경 오빠는 내가 한국 사람인 줄 알고 "안녕하세요"라고 했어요. 나는 중국말로 말했어요. "한경 오빠, 화이팅!" "건강 조심하세요!"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경 오

빠는 "야! 중국사람이네", 저는 "네, 흐흐"

그 후로 우리는 중국말로 이야기를 했어요.

한경 오빠는 나에게, "우리 한국에서 같이 파이팅 하자! 열심히 공부해요."라고 했어요.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꿈만 같았어요. 구름에 떠다니는 기분 같았어요.

수퍼주니어의 콘서트가 열리는 곳은 어디든지 친구들과 몰려 다녔어요. 한경 오빠는 중국의 자랑이에요. 한경 오빠는 중국을 외국에 알리는 애국자예요. 또한 한경 오빠는 북경 올림픽에서 성화 릴레이 선수로도 뽑혔어요. 한국이나 중국 팬들이 정말 자랑스러워 해요. 여러분은 어떨습니까?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나는 한국에 와서 성공한 한경 오빠를 보면서 힘을 얻었어요. 나도 목표를 향해 아주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나의 한국 생활은 매일 매일 즐겁고 행복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중국의 전통 희곡

글 장천여 호텔외식경영학과 3학년

중국의 전통 희곡은 세계의 세 가지 오래된 희곡문화 중의 하나이다. 800년쯤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희곡은 문학, 음악, 무용, 미술, 무술, 곡예 등 여러 가지 예술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중국의 지방극에는 360 개 정도의 종류가 있다. 지금도 여전히 유행되고 있는데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주 좋아한다. 중국 전통 희곡 중에서 경극, 곤극, 천극, 월극이 제일 유명하다.

경극은 중국의 국극으로서 전통문화를 대표한다. 다른 분야에도 큰 영향을 주며 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

곤극은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600년 전 강소성 곤산에 시작되었다. 가사가 섬세하고 멜로디도 아름답다. 곤극은 오방언으로 연기된다. 우리 고향이 오방언을 사용하기 때문에 곤극은 우리 고향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다. 천극은 사천 방언으로 연기된다. 천

극 중에서 <변련>이 가장 유명하다. <변련>에서 배우가

신속하게 얼굴 표정을 바꾸는 것이 매우 재미있다. 기회가 있으면 꼭 한 번 가 보기를 바란다. 월극은 광둥성이 발원지다. 그 지방 민가에서 발전해 이루어진 방극은 지금 홍콩에서 유행한다.

중국의 전통 희곡은 소중한 중국의 전통 문화이다. 중국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담겨 있다. 중국 그리고 세계의 재산이다. 여러분 스스로 희극을 보존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그래야 미래의 우리 자손들이 이 문화를 볼 수 있다.



붕어두부탕

글 변소교 호텔외식경영학과 3학년

중국 음식 중에서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하세요? 그 음식을 직접 만들 수 있어요?

먹어 본 음식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붕어두부탕>이에요. 붕어두부탕은 붕어와 두부를 함께 삶아 만든 음식인데 두 재료가 궁합이 맞아요. 궁합이란 두 음식이 서로 어울리는 정도이에요. 예를 들면, 비타민C가 풍부한 딸기를 섞어 먹으면 영양분의 흡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건강에 좋은 것과 같은 것인데 이때 궁합이 맞다고 말해요.

칼슘이 풍부한 두부와 비타민 D가 풍부한 붕어를 같이 삶으면 사람들은 그 영양분을 최대로 섭취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주 그렇게 해요.

먹고 싶어요? 어떻게 만드는지 방법을 아세요?

제가 붕어두부탕을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 기억하세요!

- 1 붕어, 두부, 황주, 소금, 조미료, 파, 생강, 식용유, 전분을 준비한다.

- 2 두부는 조각으로 썰고 소금물에 넣고 5분 동안 담근다.
 - 3 붕어의 비늘과 내장을 제거하고 황주를 바른 뒤 소금을 조금만 뿌리서 10분 동안 담근다.
 - 4 생강, 파는 조각으로 채 썬다
 - 5 냄비에 기름을 붓고 뜨거워지면 생강과 파를 먼저 볶고 다음에 붕어를 넣고 노르스름하게 지진다.
 - 6 적당량의 물을 넣어서 25분 동안 약한 불로 끓이고 다음에 두부를 넣어서 5분 동안 끓인다.
 - 7 전분을 넣는다.
 - 8 예쁜 그릇에 담고 파를 뿌린다.
- 여러분, 위에 언급한 방법을 마스터했어요? 빨리 빨리 해 보세요!





새 학기를 맞이하는 즐거움

글 윤효가 호텔외식경영학과 3학년

겨울방학 전에 한국에서 3개월 동안 산 적이 있습니다. 이번 새로운 학기 초에 한국에 다시 와서 새로운 느낌이 많이 생겼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겪은 일들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첫날, 인천공항을 나왔을 때 여름의 뜨거운 열기가 가득 했어요. 나는 머리를 들어서 한여름의 햇빛을 봤어요. 눈이 부셔서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이었는데 날씨가 좀 따뜻하고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송대학교는 유학생들을 위해 새로운 기숙사를 세웠는데 2월말에 완공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숙사로 옮긴지 얼마 되지 않지만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기숙사는 학교 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내의 여러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내 방은 11층에 있는데 전에 살던 기숙사보다 훨씬 높아서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아침마다 침대에 누워 있으면 따뜻한 아침 햇살이 들어와서 내 이불을 비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일어나서 큰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하루 종일 즐거운 기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 고향 남경의 기후는 대전과 비슷하지 않습니다. 남경은 사계절이 뚜렷하지만 겨울과 여름이 길고 봄과 가을이 무척 짧습니다. 봄과 가을의 아름다운 경치가 오래가지 않아서 제대로 감상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이제 봄이 깊으면 깊어질수록 따뜻해집니다. 우리 기숙사의 큰 창문 앞에서 서서 볼 수 있는 식물들이 점점 산뜻하고 아름다워집니다.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합니다.

전에 한국에 왔을 때, 두 주일 동안 장마가 있어서 창문밖에는 끊임없이 비가 내렸습니다. 작년 말, 한국을 떠날 때 학교 정문에 있는 단풍의 나뭇잎이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학교 가는 길에는 은행나무잎이 가득히 깔려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봄이어서 날씨가 맑고 따뜻하고 곳곳에 개나리가 필니다. 이번에 한국에 와서 봄에 오는 눈도 봤습니다. 많이 내리지는 않았지만 변함없이

아름답습니다.

이번 학기에 신입생들도 많이 봤습니다. 한국에 새로운 학기는 봄에 시작되는데 우리나라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학기는 보통 가을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신입생을 봐서 좀 놀랐어요. 나도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을 그때서야 느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한국은 단일민족입니다. 단일민족이 가지고 있는 단결심은 이런 만물이 재생하는 봄에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매일 오후 운동장을 지나칠 때 신입생들이 봄 운동회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 신입생들이 연습하는 운동 종목은 대부분 단체 종목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단체 종목이 있지만 한국보다는 적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단결심은 지난달 치룬 우리 과의 MT활동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 초, 나는 많은 활동을 통해서 여러 한국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그 친구들은 아주 친절하고 착해서 나의 한국생활 적응과 공부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학교에서 하는 아르바이트도 신청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점 바빠지고 시간이 빨리 지나가게 돼서 즐겁습니다.



오늘의 요리-토마토 계란국

글 진천 국제경영학과 3학년

중국에는 여러 가지 요리가 많아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오래간만 중국 요리 중에서도 특별한 음식인 토마토 계란국이 참 먹고 싶어요. 다행히도 어머니가 토마토 계란국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재료: 토마토, 계란, 소금, 참기름

먼저 토마토를 물에 넣고 깨끗이 씻는다.

다음 토마토를 덩어리로 썬다.

그 후에 깨끗한 젓가락으로 계란을 뒤섞는다.

그리고 토마토를 조금 볶고 후에 물을 붓는다.(역기가 제일 중요해요. 일반 국보다 더 맛있게 된다.)

물이 끓은 후에 계란을 넣고 토마토와 같이 끓인다.

국이 끓으면 소금과

참기름을 좀 넣고 익히면 된다.

마지막으로 국을 떠서 예쁘게 그릇에 담는다.

지금 빨리 만들어 먹자! 응~~ 맛있어!



중국요리의 이름을 이야기 한다

글 장천 호텔외식경영학과 3학년

요리예술이란 말이 있듯이 중국에서는 음식의 색, 향기, 맛, 모양을 소중히 할 뿐만 아니라, 요리의 이름에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요리의 이름이 음식의 특성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만든 요리사의 심미안과 취향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식에 아름다운 이름을 짓는 것이 요리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중국 음식의 이름은 맨 앞에 주요 재료를, 그 다음 요리법을 붙여 명명합니다. 그런데 요리법의 발전에 따라서 음식이 요기를 위한 것에서 나아가 음식 먹기를 통해 기분 기분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음식의 재료는 너무도 많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음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음식을 아름다운 경지로 높이기 위해서는 정묘한 비유를 써야 합니다. <산호 쇠고기>, <백화 참새우>, <목련 두부> 등은 모두 비유를 사용해서 명명한 것입니다.

어떤 음식의 경우 당신은 보지도 않았고 먹지도 않았는데도 이름만 보고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좋은 음식 이름은 산수화와 같습니다. 요리의 재료, 색깔, 조형, 우의 등에 특정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먹는 사람에게 예술적 향수를 느끼게 합니다. 예를 들면, <백연타산>(제비 백 마리가 우산을 펴다), <팔선과해>(여덟 신선이 바다를 건너다), <금후와설>(금색 원숭이가 눈 위에 었드려 있다), <금어회련>(금붕어가 연꽃을 갖고 놀다) 등, 생동감 있고 구체적인 음식 이름을 보세요.

이 밖에, 몇몇 음식들은 특별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아주 유명합니다. <불도장>(부처가 벽을 뛰어 넘다)이 그 중 하나입니다. 그 음식의 이름을 사가로부터 나옵니다. '너무 맛이 있으니까 부처도 참선을 하지 않고 벽을 뛰어넘어가서 먹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요리의 이름은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자가 몇 개 되지 않지만 아름다운 경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중국요리의 이름은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자가 몇 개 되지 않지만 아름다운 경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世宗 御製 訓民正音

나랏말싸미 中國 어말아

文宗 와로서르스모디아니할씨

이런전조로어린百姓이니르고

저흥배이셔도

무춤내제브를시러퍼디물항노미하

니라 내이를爲하여어엇비너겨

새로스를의를字를말기노니

사름과다히여스빙니겨날도부메便

安한 크고저글사르미니라

이녕